

박택수/김소연선교사 기도편지

2025. 12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먼저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일 년 12달 더운 날씨만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가끔씩 한국의 추운 날씨를 그리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만의 추운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반팔만 입고 지내고 더운 크리스마스에 익숙해 있었는데 추운 크리스마스가 조금은 낯설기도 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은 복된 성탄 보내셨는지요?

1. 동남아 불어 닥친 태풍

2025년 9월 이후 동남아시아와 인접한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를 포함한 피해 지역 전체의 사망자 수는 1,200명을 넘어섰고, 수천 명이 실종되고 수백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북부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 레이몬드목사 납치사건 최신 소식

레이몬드목사는 2017년 2월 13일, 세 대의 검은 세단 차량과 오토바이를 탄 다섯 명의 복면을 쓴 남성들에게 조직적으로 납치되었으며, 납치 당시 영상을 아들 조나단과 큰 딸 에스더가 찾아 내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레이몬드목사는 실종 이후 아직까지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레이몬드목사의 아내 수잔나사모님은 남편의 납치에 대한 정부의 공모와 이후 부당하고 지연된 수사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당국이 레이몬드목사를 이슬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납치범 중 일부가 당시 현직 또는 전직 경찰관이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레이몬드목사의 유족에게 3,100만 링깃(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백 11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슬람 정부가 레이몬드목사의 납치 및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경찰에 사건 재수사를 명령하고, 2개월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말레이 정부가 고등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판결로 인해 수잔나사모님과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우리들의 안식년

저희 가정은 여러 사정으로 안식년을 갖지 못하고 지내다가 16년만에 안식년 다운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안식년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우리 가정 네 식구가 5년만에 완전체로 모였고, 장인어른의 소천, 어성경 전문강사 과정 수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말레이 무슬림 상황들을 알리면서 우리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었습니다. 우리의 사역 나눔을 통해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와 말레이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슬림 사역에 헌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은 안식년 후에 2월 5일에 다시 다음 팀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팀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보다 더욱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우리 가족은

5년만에 완전체로 모인 우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지의 한국에서의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둘째 예인이는 지난 주에 대학교 1학년 기말고사를 마쳤습니다. 공부하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1학년을 마쳤네요. 2학년도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 레이몬드목사 납치 실종에 대한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의 배상 판결 나왔는데 말레이 무슬림 정부가 이 판결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수잔 나사모님과 세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2. 레이몬드 납치 사건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롭게 전도와 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3. 오랫동안 갇은 안식년을 마치고 2026년 2월부터 새로운 한 팀을 시작하는데 이번 팀은 지난 23년의 시간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4. 이번 팀은 더욱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며 말레이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여 날마다 말레이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5. 안식년 중에 사역보고와 말레이시아 상황을 소개하며 방문했던 교회들마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한 더욱 많은 후원과 중보의 동역자들을 부쳐주시도록
6. 주께서 예지와 예인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아직까지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을 다 못했는데 올겨울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7. 예인이가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계획한 시기에 건강하고 무사히 군대에 다녀올 수 있도록